

설움 많은 타향살이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정착

취재 및 정리 : 이 희 영 (축산신문 기자)

충남 부여군 임천면 두곡리에 자리 잡고 있는 성동목장. 목장입구에 들어서면 드넓은 목장부지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축사를 보면 그 어느 목장보다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성동목장이 이 자리로 이사 온 것은 불과 1년 6개월 전.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쫓겨난 목장은 타의에 의해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전 과정은 그 아찔로 한 편의 드라마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용우 대표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제2의 고향인 부여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있다.

낙농업은 나의 천직

이용우 대표가 낙농업을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비로 받은 돈으로 산양 2마리를 구입해 처음 젖을 짜기 시작하며 낙농업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당시 이 대표의 부모님들은 수학여행을 갔어야 하는 아들이 산양 2마리를 끌고 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한다. 산양을 키우던 이 대표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젖소를 키우기 시작했다.

대학교를 다닐 때에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젖소를 한 마리씩 늘려온 것이 현재의 성동목장을 일궈냈다. 특히 이 대표는 낙농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지 않다고 평생 천직이라고 말한다. 단지 시간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 가지 단점이다.

6만여 평의 조사료 포와 육성우를 포함해 220여두를 키우며 매일 2톤이 넘는 우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조사료 수확시기를 제외하면 시간적 여유는 많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 대표는 아침 4시 50분이면 일어나 5시부터 착유를 한다. 1시간 20분 정도 착유를 하고 나면 아침일이 끝난다. 이후에는 조사료 작업이 없는 시기에는 오후 착유작업을 준비하는 4시까지 이 대표의 자유시간이다. 오후 착유는 5시에 시작해 7시 30분이면 성동목장의 하루 일과가 끝난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 대표는 “어린 나이에 목장을 시작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다”며 “낙

농이 천직"이라며 앞으로 15년은 더 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로 고향에서 쫓겨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천안논산간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인해 논산도 개발의 중심에 서게 됐다. 특히 성동목장이 있었던 자리는 논산지방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1차 개발 당시에는 목장의 일부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결사 반대로 목장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2차 공단개발이 이뤄지면서 성동목장은 공단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만만치 않은 이전 작업,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각서만 4건 작성

고향을 떠나 목장을 지속하기 위해 사방으로 부지를 물색하러 다녔다. 그러던 중 현재 지목이 초지로 돼 있는 부지가 매물로 나와 계약을 하게 됐다.

계약 당시만 해도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불가능 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넣고 동네 이장의 동의하게 계약했다.

부지는 우여곡절 끝에 계약했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민원 없이 축사 공사를 진행하느냐였다. 때문에 계약이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목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동네 이장과 이전 토지주만의 비밀로 했다. 하지만 토목공사를 위해 포크레인이 목장부지로 진입하려 하자 인근 주민 10여명이 몰려와 길을 막아섰다.

논산의 목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 대표는 급히 공사 현장으로 달려갔다. 가서 현장을 보니 포크레인 앞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크레인 기사와 말다툼하는 사람까지 도저히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일단 포크레인을 철수시키고 주민들은 긴급 주민회의를 시작했다. 주민들은 목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으며 부여군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는 것이 당시 이 대표의 심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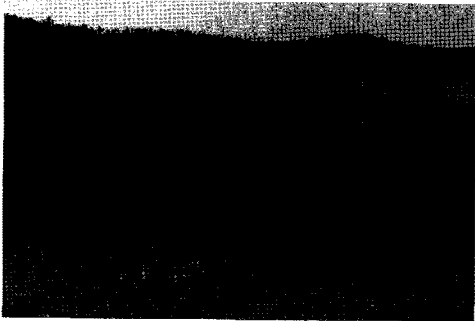
결국 우여곡절 끝에 주민들과 합의는 했지만 '절대 방목을 하지 않는다',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다',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인근 마을에 수량이 감소할 경우 즉시 폐공시킨다' 등 당시 작성한 각서만 4개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차량들로 인해 도로에서 마을 입구까지 2km 남짓 농로가 파손됐다며 아스콘 포장까지 해줬다.



이용우 대표와 부인



착유실



조사료포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

이용우 대표는 아직 집이 없다. 물론 고향인 논산에 집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갈 뿐 대부분 목장의 착유실 한 칸에 마련한 사무실겸 숙소에서 지낸다.

목장에 집을 새로 지을 계획이지만 앞으로 목장을 어떻게 꾸며 나갈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어디에 집을 지을지 고민이란다.

목장은 완전히 이전했지만 내 고향이 아닌 이상 아직까지 남의 동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대표의 말이다. 타향에서 목장을 새로 시작해 적응해 나가는 것은 목장 이전작업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다.

고향에서 목장을 할 때는 약간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갈 사소한 일들도 타향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벼짚 작업은 부여에서는 단 한 롤도 생산하지 못하고 논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에 우리 동네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우리 동네 사람으로 인정하겠지만 낙농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죄인 아닌 죄인이 돼 주민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말이다.

대를 잇는 목장, 체험목장도 계획

이용우 대표는 현재 부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다. '과연 앞으로 낙농업을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평생 직업 낙농을 그만두면 무슨 일을 할까?' 등등. 하지만 대학 1학년 20살 약관의 나이부터 35년간 해온 낙농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고민 끝에 결국 앞으로 15년 정도는 충분히 목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후에는 현재 한국농업대학에서 축산을 전공하고 있는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으로 이전을 결심하게 됐다.

특히 현재 목장부지를 계약하면서부터 넓은 목장부지는 조사료포로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체험목장으로도 가꿀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성동목장은 아직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는 못하다. 분뇨가 모자라 조성해 놓은 조사료포를 늘리는가 하면 아직 제대로 된 집 한 채도 짓지 못한 상황이다. 또 올 여름에는 폭우로 인해 조사료포의 축대가 무너지는 등 아직도 할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지만 목장을 잘 가꿔 누가 와서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목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향후에는 체험목장도 계획하고 있다.



새로 이전한 성동목장의 축사내부 모습

돈으로 해결 못하는 민원, 결국 사람이 하는 일 더불어 사는 방법 찾아야

목장을 이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민들의 반대였다는 것이 이 대표의 말이다. 이 대표는 “목장 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사소한 부문까지 수많은 마찰을 빚었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목장을 이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위 사람의 도움 없는 결코 해낼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주민들과 마찰이 한창이던 시기에 우연치 않은 술자리에서 과거 형님, 동생 사이로 인연을 맺었던 한 지인의 고향이 목장 바로 옆이란 것을 알게 됐다.

다행히도 이 지인의 집안이 인근지역에서 덕망이 높아 지인의 소개로 주민들과의 관계도 원만해 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목장 부지를 물색하러 다니던 때에도 친분을 유지하던 부여군 관계자 현재 목장 부지를 소개해 줬다. 물론 목장 공사를 하며 마을에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농로포장을 해주는 등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됐지만 이 역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란단다.

이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최근 인근 주민들과 부여성인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바로 장학 사업이다. 매일 힘들게 일해 번 돈이라고 생각하면 큰돈이지만 제 2 고향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다.

“남들이 먼저 요청해 어쩔 수 없이 해주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하면 좀 더 쉽게 마음을 열 것”이라며, “모든 낙농가, 축산인들이 비록 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하나둘 모이면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더 나아지고 어디서나 환영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이 대표의 말이다. ㉞